제주문화상징 '폭낭'이 사라진다

"마을 구심점으로 고향 같아"
보호수·노거수 수종 대다수
수령 짧으면 관리 사각지대
정원수 등 판매 사례 잇따라

최근 제주시내 옛 길에 자라던 팽나무(왼쪽)가 굴삭기 작업으로 사라졌다(오른쪽).
사진=홍진숙 작가 제공

지난 24일, 화가 홍진숙씨는 아침마다 거니는 제주시내 산책길에서 눈물이 나올 뻔 했다. 옛 길에 자라고 있던 팽나무가 굴삭기로 뽑혀나가는 장면을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 길에서 만난 풍경을 그리거나 떨어진 나뭇잎을 이용한 판화 작업으로 다가오는 그룹 전시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그에겐 상실감이 더 컸다.

2008년 제주도가 '제주문화상징' 중 하나로 선정했던 폭낭('팽나무'의 제주방언)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정원수 등으로 팔려나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나무는 제주 마을의 단순한 나무라기 보다는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수목으로 고향을 상징한다. 민간신앙의 성소에도 당의 신목으로 가장 많은 것이 팽나무다.

앞서 제주도는 팽나무를 제주문화상징으로 정하면서 "제주사람들의 삶에 파고드는 서늘한 그늘이며 마음의 안식처로 제주인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있는 나무"로 소개하고 마을 경관 복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12월 기준 100년 이상 수령을 가진 도내 보호수는 15개 수종 158그루에 이른다. 이중 팽나무가 99그루(제주시 74, 서귀포 25)로 가장 많다. 2014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에 따라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나무는 노거수로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만 노거수가 51그루이고 그중 팽나무가 45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된 팽나무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령이 짧으면 그렇지 못하다. 제주도는 "판매 등 소유자의 처분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팽나무가 없어질 경우 수십 년 뒤에는 노거수 등으로 지정할 수목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홍진숙 작가는 "이번 일로 산책길에 그나마 남아있던 팽나무들이 전멸되었다"며 "이곳만이 아니라 답사를 다니다보면 전에 봤던 마을 안 팽나무가 없어진 걸 보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진선희기자

문화 공백 최소화 "고마워요 도서관"

지자체·교육청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2곳 '북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 적극행정 사례로

한라도서관에서 '북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온라인 예약도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겨난 문화 공백을 최소화하는 제주지역 공공도서관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제주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일제히 '비대면 예약도서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 공백이 길어지며 마음의 빈곤이 깊어지지 않도록 책을 통해 그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존재를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내 공립 문화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전시실 등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4일 이후 차례로 기한없는 휴관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공공 문화시설에서 한달 넘게 공연, 전시가 실종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공공도서관들은 비대면 예약도서대출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교육청, 지자체 도서관을 가리지 않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하면 도서관별로 정해진 요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책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도서대출 서비스는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이 예약 도서를 뽑아내고 대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정상 운영 때보다 작업량이 더 늘어난다. 그중에서 제주도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과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예약 도서를 받아갈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다.

지자체 공공도서관 15곳의 경우 3월 26일 기준으로 '북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예약도서대출 서비스 이용자는 5367명으로 예약 도서는 1만6556권에 달한다. 시행 초기인 3월 9일 실적 680명 1736명에 비해 그 수치가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한라·우당도서관에서 시행중인 '북 드라이브 스루'가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소개되고 공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서귀포예당 기획공모 선정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최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주관하는 2020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공모에 뽑혔다.

선정된 작품은 창작 뮤지컬 '손 없는 색시'다. 제주 설화인 '배조주의 딸', '김녕사굴 설화', '서복 이야기'를 현대풍으로 각색해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으로 김경택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수석단원이 작곡과 총감독을 맡아 지난해 초연됐다. 한문연 공모 선정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는 '손 없는 색시'는 오는 8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앙상블팀과 무용단을 보강하고 무대디자인과 세트를 확장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으로 '2020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사업은 A, B유형으로 나뉜다. A유형은 우수문화콘텐츠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당 3000만원씩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B유형은 산업간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당 2000만원씩 총 5개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도외 기업과의 기술교류 지원, 전문가 컨설팅, 교류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4월 17일까지 이루어진다. 문의 064)735-0618.

'4·3그림책 수업' 등 개설

제주문화중개소 시:작'이 서귀포 지역 문화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강좌는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의 저자 오승주 작가가 진행을 맡는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모집해 개설하는 '4·3없는 4·3그림책 수업'은 총 31회에 걸쳐 4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어린이문화공간 벨빌에서 열린다. '청소년아, 정치소설 시작하자!'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2회 동안 매주 토요일에 퐁낭작은도서관에서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중개소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38-9279.

제주 문화계 '잠시 멈춤' 언제까지…

5월 설문대페스티벌 취소
비엔날레 8월 18일로 연기
아트센터 4월도 공연 없어
미술관·박물관 휴관 지속

공공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제주 문화계의 '잠시 멈춤'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외 참가자들이 제주로 이동해야 하는 5~6월 문화 행사가 일찌감치 취소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 공연장에서는 4월 일정 전체가 취소된 곳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 공립박물관·미술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휴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설문대할망제, 공연, 굿 문화제 등 2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

2007년 축제가 시작된 이래 행사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제주도와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시기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올해로 2회째인 2020제주비엔날레는 일정을 두 달 가량 늦춰 8월 18일 개막한다. 당초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89일간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8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76일 일정으로 축소했다. 제주도와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대규모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문화가치를 알리는 행사인 만큼 시기와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도립미술관은 3월 중 행사추진 업체와 계약을 맺고 4월부터 7월까지 작품 제작과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비엔날레 일정 변경에 따라 재개관 후에는 상반기 기획전 연장 전시도 추진한다.

지난 2~3월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했던 제주아트센터는 4월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100회 정기연주회 등 4월 기획·대관 공연 취소 소식을 알렸다.

반면 제주도문화진흥원 문예회관과 서귀포예술의전당은 4월 중·하순 이후 공연·전시 일정을 공지했다. 문예회관 대·소극장은 4월 21일부터 그 달에 9건의 공연 일정이 잡혔다. 전시실은 4월 18일 제49회 제주소묵회전을 시작으로 이후 대관 일정을 소개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4월 26일과 28일 2건의 공연을 예고했다. 진선희기자

'이번주 무대와 미술'(3월 30~4월 5일)은 쉽니다.

주택용 태양광 50%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2020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사업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지원범위 : 세대당 3kW
보조금 : 공사비의 50%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